

민 정 실	음 진 천	<h1>BUDDHANARA</h1>
-------------	-------------	---------------------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금강경 독경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법회장소가 확보될때까지 지역 법등 법회는 쉽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남의 죄만 보고,
 밤낮으로 남의 죄악만
 꼬집는 사람,
 자기 죄 자라고
 자기 허물 끝난 날 없다네.

If a man sees the sins of others and for ever think of their faults, his own sins increase for ever and far off is he from the end of his fault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삼귀의란 무엇인가

“불법승 삼보는 불자가 귀의해야 할 대상”

인간은 원래 사회적 존재요 연기적 존재이기에, 누구나 예외 없이 이웃과 사회, 자연과 우주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정신적 의지처가 없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불안과 방황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잡야함 <존중경>에서 “의지하고 존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쾌락, 명예와 권력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에 의지해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윌터 스콧트 경의 표현처럼 ‘숲 속 나뭇잎의 아침이슬과 같고 흘러가는 강물 위의 물거품과도 같은’ 실로 덧없는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꿈과 같고 그림자와도 같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다. 돈과 쾌락, 명예와 권력은 우리의 영원한 의지처가 될 수 없으며 정신적 존중과 공경의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 오늘날처럼 모든 권위가 붕괴된 시대에서는 존중의 대상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설혹 그러한 대상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큰 공허 속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불교인들은 부처님 재세시 때부터 세 가지 보배, 즉 삼보에 귀의하였으며, 그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는 불교인이 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의례이며 규범이다. 그래서 삼귀의를 삼귀의례 또는 삼귀의계(三歸依戒)라고도 하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삼귀의례를 일반적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우리말을 가사로 하여, 칠음계에 의한 서양음악 또는 찬송가풍의 노래로 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귀의승 중중존”이라는 한문 가사를, 범패 가락으로 합창하기도 하고 선창 후창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다.

귀의불 양족존(歸依佛兩足尊)이란, 두 다리(兩足)를 가진 존재 즉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인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이지만, 흔히 복덕과 지혜 두 가지를 모두 구족하신(兩足) 존귀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귀의법 이욕존(歸依法離欲尊)이란, 욕심을 떠나 여인 존귀한 부처님의 교법, 다시 말해 참다운 진리의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의 교법은 객관성과 보편성, 세계성과 영원성을 지닌 진리여서 모든 사물과 존재에 두루 평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사롭고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 있다는 의미에서 이욕(離欲)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욕심이야말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역행하는 당체임을 상기한다면 부처님의 교법을 이욕존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귀의승 중중존(歸依僧衆中尊)이란, 수많은 중생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스님들에게 귀의한다 또는 수많은 집단과 단체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불교 교단(僧伽) 즉 불교공동체에 귀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삼귀의례를, 남방불교권에서는 세 번 반복해서 팔리어(Pali)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붓당 사라낭 갓차미
담망 사라낭 갓차미
상강 사라낭 갓차미
두띠얌삐 붓당 사라낭 갓차미
두띠얌삐 담망 사라낭 갓차미
두띠얌삐 상강 사라낭 갓차미
따띠얌삐 붓당 사라낭 갓차미
따띠얌삐 담망 사라낭 갓차미
따띠얌삐 상강 사라낭 갓차미

“붓당 사라낭 갓차미(Buddham saranam gacchami)”의 의미를 살펴보면, ‘붓다’는 부처님, ‘사라나’는 귀의 또는 귀의처, ‘갓차미’는 내가 간다는 뜻으로서, 결국 이것은 “제가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혹은 “제가 이제 부처님이라는 귀의처로 나아갑니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담망 사라낭 갓차미”는 “제가 이제 담마(法)에 귀의합니다”라는 뜻이며, “상강 사라낭 갓차미”는 “제가 이제 상가(僧伽)에 귀의합니다”라는

의미이다. 두띠얌삐(dutityam pi)는 ‘두번째도 또한’이라는 의미이고, 따띠얌삐(tatiyam pi)는 ‘세번째도 또한’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 삼귀의와 팔리어 삼귀의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스님들’과 ‘상가’의 차이이겠는데, 상가의 중심 구성원이 스님들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스님들’의 본래적 개념이 ‘상가’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존중해야 할 것은 진리요 진실이다. 설혹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이롭게 한다. “맛있고 향내나는 미끼 아래 반드시 고기가 죽어나간다”는 말처럼, 진실이 아닌 달콤한 미끼를 우리는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미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과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보에 대한 귀의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2548 년 (2004 년) 부처님 오신날 일년 연등 및 일년 영가 연등 기도 명단 일련 번호-

* 일년 연등 기도 동참자 (지면 관계상 가족 대표만 적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세계평화 불사원만 성취; 0. 강석주 큰스님 건강발원; 0. 불국회 소원성취
1. 임현철, 2. 백송 오영주, 3. 심용택, 4. Mark Nugent IV, 5. Sookja Nugent, 6. 김주태, 7. 김재수, 8. 박용주, 9. 안소혜, 10. 박정근, 11. 류용렬, 12. 문정모, 13. 양영일, 14. 윤선규, 15. 한정언, 16. 김대성, 17. 조남국, 18. 현심행 김설아, 19. 조민우, 20. Michael-Lee-Cottmeyer, 21. 보광 이진욱, 22. 진성 심환우, 23. 덕운 김진희, 24. 근일 허정석, 25. 법성 이상철, 26. 설윤, 27. 이오, 28. 대혜 임종춘, 29. 김대원, 30. 여태호, 31. 정순범, 32. 오칠석, 33. 홍대선, 34. 청정행 정혜주, 35. 현덕 홍준수, 36. 유행석, 37. 이민종, 38. 이은선, 39. 김용준, 40. 박래경, 41. 연화심 김효례, 42. 박으뜸, 43. 박꽃별, 44. 박셋별, 45. 이정철, 46. 이금규, 47. 이윤재, 48. 한영선, 49. 손영찬, 50. 이수, 51. 이형준, 52. 김재상, 53. 최복영, 54. 김여진, 55. 김경근, 56. 박광수, 57. 김효정, 58. 박은지, 59. 박병주, 60. 유인갑, 61. 전순영, 62. 유병호, 63. 유병준, 64. 김일태, 65. 이종태, 66. 이건호, 67. 김경옥, 68. 김경훈, 69. 이동기, 70. 이찬혁, 71. 정영택, 72. 김한경, 73. 정노미, 74. 김도연, 75. 김병일, 76. 김수영, 77. 송석준, 78. 김순덕, 79. 송민호, 80. 송민희, 81. 김명동, 82. 법륜행 정승용, 83. 최문선, 84. 최봉순, 85. 최병옥, 86. 이성연, 87. 이근재, 88. 윤권섭, 89. 윤진홍, 90. 김성국, 91. 박형근, 92. 정장균, 93. 윤업준, 94. 윤수연, 95. 강경식, 96. 유지선, 97. 유승준, 98. 황현식, 99. 양영기, 100. 김재철 (장업등), 101. 김태성, 102. 이금주, 103. 김준협, 104. 주진완, 105. 구은서, 106. 권나연, 107. 구지윤, 108. 이준형, 109. 김해화, 110. 김형선, 111. 박상욱, 112. 박지원, 113. 박혜빈, 114. 서정미, 115. 김익규, 116. 백승록, 117. 백채운, 118. 김태식, 119. 임공택, 120. 이규영, 121. 남점술, 122. 일각 김영신, 123. 김영희, 124. 이홍재, 125. 홍대길, 126. 이상필, 127. 오주명, 128. 황규범, 129. 박임환, 130. 한복희, 131. Jack Benton, 132. 염상열, 133. 강정대, 134. 김옥순, 135. 장순희, 136. 락행 안구용, 137. 지용 심덕보, 138. 조우형, 139. 설춘호, 140. 박광민, 141. 황영기, 142. 이은범, 143. 이대용, 144. 정중헌, 145. Wilbur Gilmore, 146. 이승아, 147. 원수호, 148. 김동분. (이상 연등 148 등)

* 일년 영가등 기도 동참자 명단

1. 망부 풍씨 후인 풍금성 영가, 망모 경주유인 이연이 영가 (행효자 풍춘하 복위), 2. Mark Nugent III 영가, (정숙자 복위) 3. Ellen Nugent 영가 (정숙자 복위), 4. Mark Nugent II 영가 (정숙자 복위), 5. 망부 전주후인 이상열 영가, 망모 평상유인 신영옥 영가 (행효녀 이문자 복위), 6. 망부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행효녀 김동희 복위), 7. 망부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망모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망숙부 남평후인 문길한 영가, 망숙모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행효자 문정모 복위), 8. 망양부 Joseth Spethen Prosciewicz 영가 (망양자 Michael-Lee-Cottmeyer 복위), 9. 망부 경주후인 김동수 영가, 망모 진주유인 강문자 영가 (행효녀 김미정 복위), 10. 밀양유인 박미영 영가 (황정숙 복위), 11. 망부

안씨후인 안창호 영가 (행효자 안중재 복위), 12. 망부 하양후인 허봉선 영가 (행효자 허정석 복위), 13. 사친후인 목문균 영가, 14. Jamin Sanchez 영가, & Dog 영가 (김수현 복위), 15. 망부 진주후인 강명광 영가 (행효자 강정대 복위) (이상 영가 연등 15 등)

법회소식 NEWS

- 올해는 2548 년째 맞는 부처님 오신날 이고 불국사 창건한이래 만으로 두해가 되는해 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는 올해로 불국사 에서는 세번째를 맞이 합니다. 불국사 일년등 연등 불사에는 세계 각지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해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도 불국회의 연등불사는 앞으로 불국사가 이곳 세인트루이스에 뿌리를 내리고 포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초파일 일년 연등 동참 148 등과 영가 연등 동참 15 등으로 총합계 163 개의 등은 앞으로 일년동안 법당을 장엄할것입니다.
- 올해 부처님 오신날에는 불국사에서 처음으로 관불의식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신도님들께서 질서를 지켜 주셔서 여법하게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할수 있었습니다. 가든파티때 드신 음식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불국사 신도님들이 모두 앞장서서 준비하신텐들입니다.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주신 덕분에 모두가 즐거운 점심공양 시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 입재때와 회향때 그리고 관불의식 좌대 꽃꽂이를 해주셔서 법당을 장엄하게 해 주신 안소혜 불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처님 오신날에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 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게시판을 방문하시면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관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법당이 비좁을 만큼 많은 불자님들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무량한 복이 있으리라 생각 듭니다. 특히도 편도 4 시간 (왕복 8 시간) 운전도 마다하지 않고 멀리 켄터키주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곳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법요식에 동참해주신 이대용 거사님 가족과 정중헌 거사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법회에서 뵈을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도와 참회 그리고 베푸는 삶은 우리불자들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불국사 신도님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 정진하는 생활을 해 나가시는 모습 감사 드립니다. 기도를 집에서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사찰에 알려주십시오. 되도록이면 기도 입재와 회향은 법당에서 가져 주셨으면 하고 입재 축원과 회향축원은 스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불국사 신도님들 도 기도하시는 신도님들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들 해 주십시오. 백일기도 입재: 대승행 변정자 (5월 16일)
- 6월 셋째주 교리탐구 주제 발표는 대해 임종춘 거사님께서 연구발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달 교리탐구는 제 11 가의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교리탐구는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는 장입니다.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토론에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 Columbia 지역에 살고계신 류용렬 거사님댁에 장남이 2004년 6월 10일에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류재영이라 합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합니다.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로 불국사를 찾으실 것입니다. 불국사 식구들 모두 일심으로 아드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불국사 신도님이신 정숙자 교수님께서 한국에 방문차 가신길에 6월 19일날 불국회 회원들에게 대중공양하는 큰 마음을 내 주셨습니다. 대중공양은 부처님시대 때부터 내려온 불교의 또하나의 미풍양속이고 전통으로서 신도님들을 화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정이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큰 마음을 내 주신 정숙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 앞으로 불국사의 또하나의 상징이 될 불국사 정문앞 정원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니다.